

目 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凡 例

參考文獻

東萊博議 卷6

- 06-01 齊侯見豕 齊侯가 돼지를 보다 / 11
- 06-02 齊公孫無知弑襄公 齊나라 公孫無知가 襄公을 弑害하다 / 35
- 06-03 齊威公入齊 齊 桓公이 齊나라로 들어가다 / 41
- 06-04 齊魯戰長勺 齊나라와 魯나라가 長勺에서 전쟁하다 / 47
- 06-05 禹湯罪己桀紂罪人 禹王과 湯王은 罪를 자기에게 돌리고, 桀王과 紂王은 罪를 남에게 돌리다 / 61

東萊博議 卷7

- 07-01 宋萬弑閔公 宋나라 南宮長萬이 宋 閔公을 弑害하다 / 69
- 07-02 息嬀過蔡 息嬀가 蔡나라를 지나다 / 81
- 07-03 鄭厲公殺傅瑕原繁 鄭 厲公이 傅瑕와 原繁을 죽이다 / 95
- 07-04 王賜虢公晉侯玉馬 天王이 虢公과 晉侯에게 玉과 말을 하사하다 / 107
- 07-05 原莊公逆王后于陳 原莊公이 陳나라로 가서 王后를 맞이하다 / 116
- 07-06 鬻拳兵諫 鬻拳이 무기로 위협하며 諫하다 / 129
- 07-07 陳敬仲辭卿飲威公酒 陳敬仲이 卿을 사양하고 桓公에게 술을 접대하다 / 141

東萊博議 卷8

- 08-01 懿氏卜妻敬仲 懿氏가 敬仲을 사위 삼고자 하여 거북점을 치다 / 147

10 東萊博議 2

- 08-02 曹劌諫觀社 曹劌가 社祭를 구경하는 것에 대하여 간언하다 / 203
- 08-03 晉桓莊之族偪 晉나라 桓叔·莊伯의 宗族이 晉나라 公室을 逼迫하다 / 212
- 08-04 莊公丹桓宮楹刻其桷 使宗婦覲用幣 莊公이 桓公의 사당 기둥에 붉은 칠을 하게 하고
서까래에 조각을 하게 하였으며 宗婦에게 〈哀姜
을 알현할 때에〉 폐백을 올리게 하다 / 234
- 08-05 管敬仲言於齊侯曰宴安酖毒不可懷也 管敬仲이 齊侯에게 “安逸은 酖毒과 같으니 누
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다 / 244
- 08-06 齊仲孫湫觀政 齊나라 仲孫湫가 魯나라의 정치를 살피다 / 253

東萊博議 卷9

- 09-01 舟之僑奔晉 舟之僑가 晉나라로 달아나다 / 265
- 09-02 衛懿公好鶴 衛 懿公이 鶴을 좋아하다 / 269
- 09-03 里克諫晉侯使太子伐東山臯落氏 里克이 晉侯에게 ‘진후가 太子에게 東山の 臯落氏를
토벌하게 한 일’에 대하여 간하다 / 279
- 09-04 齊侯戌曹遷邢封衛 齊侯가 曹를 지키게 하고, 邢을 옮기고, 衛를 봉하다 / 290
- 09-05 衛文公大布之衣 衛 文公이 거친 베옷을 입다 / 303
- 09-06 晉荀息請假道於虞以伐虢 晉나라 荀息이 虞나라에 길을 빌려 虢나라 치기를 청하다
/ 316
- 09-07 齊寺人貂漏師 齊나라 寺人 貂가 軍事機密을 누설하다 / 325

東萊博議 卷10

- 10-01 會陽穀謀伐楚 陽穀에서 회합하여 楚나라 토벌을 모의하다 / 343
- 10-02 楚伐鄭 楚나라가 鄭나라를 토벌하다 / 357
- 10-03 楚滅弦 楚나라가 弦나라를 멸망시키다 / 371
- 10-04 楚文王寵申侯 楚 文王이 申侯를 총애하다 / 383
- 10-05 齊威公辭鄭太子華 齊 桓公이 鄭나라 太子 華의 요구를 거절하다 / 393
- 10-06 晉里克帥師敗狄 晉나라 里克이 군대를 거느리고 狄軍을 무찌르다 / 403
- 10-07 宋太子茲父請立子魚 宋 太子 茲父가 子魚에게 임금 자리에 설 것을 청하다 / 409

東萊博議 卷6

06-01 齊侯見豕 齊侯가 돼지를 보다

06-01-01 齊侯見豕 齊侯가 돼지를 보다

【左傳】莊八年이라 冬에 齊侯游于姑棼하야 遂田于貝丘하다 見大豕¹⁾하고 從者曰 公子彭生也로소이다 公怒曰 彭生敢見가하고 射之하니 豕人立而啼어늘 公懼하야 隊于車하야 傷足喪屨하다 反하야 誅屨於徒人費²⁾한대 弗得이어늘 鞭之見血하다 走出이라가 遇賊于門하니 劫而束之하다

1) [역주] 見大豕：齊 襄公의 눈에는 큰 돼지로 보이고, 從者의 눈에는 彭生으로 보인 것이다.

2) [역주] 誅屨於徒人費：誅는 責(요구함)이며, 徒人은 徒役人(수고로운 일을 맡아 하는 人夫)이고, 費는 그의 이름이다.

莊公 8년, 겨울에 齊侯(齊 襄公)가 姑棼에서 遊覽하고서 드디어 貝丘에서 사냥하였는데, 큰 돼지 한 마리를 보았다. 從者가 “돼지가 아니고 公子 彭生입니다.”라고 하니, 襄公은 화를 내며 “팽생이 감히 나타나는가.”라고 하고서 활을 쏘니, 그 돼지가 사람처럼 서서 울었다. 이를 본 齊侯는 겁이 나서 수레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신발을 잃었다.

사냥에서 돌아온 뒤에 齊侯는 徒人 費에게 신발을 찾아오도록 하였으나 찾아오지 못하자, 齊侯는 그에게 피가 흐르도록 채찍질을 하였다. 費가 도망해 나오다가 宮門에서 叛亂軍을 만나니, 반란군이 그를 위협해 結縛하려 하였다.

06-01-02 蛇鬪于鄭 뱀이 鄭나라 城門에서 싸우다

【左傳】莊十四年이라 初에 內蛇與外蛇鬪於鄭南門中이라가 內蛇死러니 六年而厲公入하다 公聞之하고 問於申繻曰 猶有妖乎¹⁾아 對曰 人之所忌에 其氣焰以取之니 妖由人興也니이다 人無釁焉이면 妖不自作이요 人棄常則妖興이라 故有妖니이다

- 1) [역주] 猶有妖乎 : 孔穎達의 疏에 의하면, 猶와 由는 古字에 通用이었으니, 魯 莊公이 鄭 厲公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서, 申繻에게 “뱀의 妖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공이 들어간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莊公 14년, 당초에 鄭나라 都城의 南門 밑에서 문 안의 뱀이 문 밖의 뱀과 싸우다가 문 안의 뱀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6년 만에 厲公이 들어갔다.

魯 莊公은 이 소문을 듣고 申繻에게 “뱀의 妖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공이 들어간 것인가?”라고 물으니, 신수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꺼리는 일이 있으면 그 불편한 心氣가 불길처럼 점점 커져서 요열을 부르는 것이니, 요열은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면 요열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사람이 常道를 버리면 요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요열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06-01-03 神降于莘 神이 莘邑의 어떤 사람에게 내리다

【左傳】莊三十二年이라 秋七月에 有神降于莘¹⁾하다 惠王問諸內史過曰 是何故也오 <對曰 國之將興에 明神降之하야 監其德也하고 將亡에 神又降之하야> 觀其惡也니이다 故有得神以興하고 亦有以亡하니 虞夏商周皆有之니이다 王曰 若之何오 對曰 以其物享焉²⁾하소서 其至之日이 亦其物也니이다 王從之하다

- 1) [역주] 有神降于莘 : 莘邑의 어떤 사람에게 神이 붙어 그 사람의 입을 빌어 말을 한 것이다.
- 2) [역주] 以其物享焉 : 享은 祭祀하는 것이다. 가령 神이 甲日이나 乙日에 내렸으면 그 神에게 지내는 祭祀에 脾臟을 먼저 올리고, 幣帛으로 올리는 玉은 蒼玉을 사용하고, 服裝은 上衣가 青色인 祭服을 입는다. 이런 類로 제사 지낸다는 말이다. 《春秋正義》에 의하면, 莘에 내린 이 神에 대한 제사의 禮가 祀典에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神에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內史 過가 그 제사에 합당한 物品으로 祭享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제사에 합당한 물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神이 내린 날로 해석하여, 이 神이 처음 내린 날짜를 조사해서 神이 내린 날짜에 맞는 물품을 사용해 제사하라고 한 것이다.

《禮記》〈月令〉에 봄의 甲·乙日, 여름의 丙·丁日, 中央土(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8일간)의 戊·己日, 가을의 庚·辛日, 겨울의 壬·癸일에 사용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甲·乙日만 들어 말한 것은 하나를 들어 나머지를 미루어 알게 한 것이다. 가령 丙·丁日에 내렸으면 제사에 肺를 먼저 올리고 玉과 祭服은 모두 赤色을 사용하며, 戊·己日에 내렸으면 제사에 臑를 먼저 올리고 옥과 제복은 모두 黃色을 사용하며, 庚·辛日에 내렸으면 제사에 肝을 먼저 올리고 옥과 제복은 모두 白色을 사용하며, 壬·癸日에 내렸으면 제사에 膾를 먼저 올리고 옥과 제복은 모두 玄色을 사용한다.

莊公 32년, 가을 7월에 神이 莘邑의 어떤 사람에게 내렸다. 惠王이 內史 過에게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묻자, 內史가 “나라가 興하려 할 때에는 神明이 降臨하여 그 나라의 德을 살피고, 亡하려 할 때에도 신명이 강림하여 그 惡을 살핍니다. 그러므로 神으로 인해 興한 나라도 있고, 神으로 인해 망한 나라도 있었으니, 虞·夏·商·周에도 모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惠王이 “이 神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內史가 “그 神이 내린 날과 相應하는 物品으로 祭享 하소서. 그 神이 내린 날을 조사하여 그 날짜에 맞는 祭品이 바로 이 神에게 사용할 물품입니다.”라고 하니, 惠王이 그 말을 따랐다.

06-01-04 卜偃童謠 卜偃이 童謠를 말하다

【左傳】僖五年이라 晉侯復假道於虞以伐虢하다 〈八月甲午에〉 晉侯圍上陽하고 問于卜偃曰 吾其濟乎 對曰 克之리이다 公曰 何時오 對曰 童謠云 丙之晨에 龍尾伏辰¹⁾이어든 均服振振하야 取虢之旂로다 鶉之賁賁하고 天策焞焞하며 火中成軍²⁾하야 虢公其奔하리라하니 其九月十月之交乎_ㄴ저 丙子旦에 日在尾하고 月在策하고 鶉火中하니 必是月也리이다 冬十二月丙子朔에 晉滅虢하니라

- 1) [역주] 龍尾伏辰：龍尾는 蒼龍七宿의 여섯째 星宿이다.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을 辰이라 한다. 이 별이 태양 옆에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伏’이라고 한 것이다.
- 2) [역주] 火中成軍：火中은 鶉火星이 남방의 中天에 뜰 때이고, 成軍은 軍功을 이룸이다.

僖公 5년, 晉侯가 다시 虞나라에 길을 빌려 虢나라를 쳤다. 8월 甲午일에 진후가 上陽을 포위하고서 卜偃에게 물었다.

“우리가 成功하겠는가?”